# 날 것을 먹는 문화

김광억 (인류학과 교수)

사람들은 먹을거리를 둘러싸고 날 것을 그대로 먹는 생식(生食)에서부터 익혀서 먹는 숙식(熟食)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리의 방법과 방식을 가지고 있다. 날 것이라도 살아 꿈틀거리는 산 낙지나 톡톡 튀는 작은 새우를 즉석에서 입안에 넣는 것과 생선과 고기의 살을 자연 그대로 먹는 회(膾) 외에 소금, 장(醬), 초(醋), 마늘과 생강과 고추와 후추, 겨자, 마 등의 양념을 곁들여서 먹는 것이 있다. 익힌 것이라 할 때에도 굽고, 끓이고, 지지고, 볶고, 데치고, 삶고, 찌고, 고우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그 외에 말리고 그을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삭히고 발효한 것 그리고 절인것 등이 있다.

우리가 소고기와 생선의 회를 먹듯이 중국 운남성의 대리(大理)에 사는 바이(白)족은 돼지고기를 날로 먹거나 인도네시아에서는 닭고기를 생으로 먹기도 한다. 또한 아프리카에서는 사자나 기린 등 야생 동물의 육포를 먹는다. 가끔씩 땅 속이나 나무줄기 속에서 굼벵이나 애벌레를 꺼내어 날로 먹으면서 맛있는 표정을 짓는 오지의 원주민의 모습을 영상매체를 통하여 보기도 한다.

대개 무엇을 어느 정도로 익히고 어떻게 요리하는가를 영양학적 분석이나 생태환경의 적응방식이라는 맥락에서 설명하지만 인간의 식생활은 문화의 표현과 실천의 한 장르이다. 사람은 영양분의 섭취 뿐 만 아니라 권력의 크기, 종교적 성스러움, 인간관계의 성격 등의 표현을 위하여 그리고 예술적 실천으로서 요리를 하고 소비를 한다. 때로 특정의 음식은 민족 정체성의 항목이 되기도 한다.

왜 사람들은 어떤 음식은 익히지 않고 날 것으로 먹는가? 요리의 복잡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예술적 감각이 없어서일까?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는 음식의 날 것과 익힌 것을 두고 야만(미개)과 문명, 자연과 문화, 조야함과 세련됨 등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한다. 중국에서 자기들의 문명을 받아들인 주변의 소수민족을 숙번(熟蕃)이라 부르고 그렇지 아니한 종족을 생번(生蕃)이라고 부르던 것도 이러한 이치이다.

날것을 먹는 것은 미개나 낙후의 징표가 아니라 음식문화의 한 중요한 영역이다. 즉 채소와 과일을 날것으로 먹고 생선과 고기의 회를 먹는 것은 우리가 미개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요리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음식에서 중요한 것은 상징과 의미이다. 그 맥락에서 맛, 모양, 색깔, 분위기, 테이블 매너 즉 음식소비의 예절과 방식 등이 음식의 영양가 자체보다

이번 호 열린지성의 교양 돋보기 코너는 다른 때보다도 훨씬 풍성하게 채워졌다. 우선 인류학과의 김광억 교수님께서 "날 것을 먹는 문화"라는 글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초밥이나 산낙지류의 음식 문화를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풀어주셨고 건축학과의 전봉희 교수님께서는 한옥의 건축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건축, 한옥이 지닌 의미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해 주셨다. 또 서유경 기자의 '한국의 창조신화는 왜 세계의 불안정성에 대해 질문을 던졌을까?' 라는 글은 우리의 신화를 통해 세계의 기원과 창조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더 중요하다. 맛에 대한 평가와 규정은 각각 달라서 무엇을 맛있다고 하는가는 문화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맛의 분류가 많을수록 음식문화가 발달했다고 하며 각각의 독특한 맛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을 미식가라고 한다.

서양인들이 생선회를 먹을 줄 모를 때 일본인들은 생선의 종류와 부위에 따른 각각 다른 맛을 즐기고 있었다. 우리가 차가운 샘물과 싱싱한 채소 그리고 육회와 생선회를 즐길 때 중국인들은 물은 끓여서 마시고 음식은 모두 기름을 쳐서 익혀서 먹었다. 중국인들은 차가운 것과 더운 것의 이분법을 가지고 있어서 냉온의 균형이 건강과 정상의 근원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익혀서 먹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인의 채소 먹기가 연변 조선족을 통하여 중국에 전해져서 신선한 날 채소와 고기요리를 함께 먹는 소위 동북풍이 유행하고 있다. 서구인들이 비만을 싫어하거나 동물보호주의에 의하여 채식주의자가 되고 고기요리를 먹을 때에도 신선한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 것이 보급되면서 채소는 날 것으로 먹는 것이 건강에 좋고 세련됨을 뜻한다는 인식이 중국인에게도 점차 유행하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식 불고기와 갈비구이가 보급되면서 구운 고기 조각을 채소로 쌈을 싸서 먹는 것까지 유행하게 되었다.

종교적으로는 아주 높은 신에게 바치는 제물은 모두 날 것이다. 일반적인 조상에게 바치는 제물은 반숙(半熟)을 하며 사람이 평소에 먹는 것은 완숙(完熟)에다 온갖 양념을 가미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듯 날 것은 익힌 것 보다 인공적인 것이 덜 들어간 만큼 더 성스러운 것이다.

세속 차원에서 날 것을 먹는 경우를 보자. 일단 미개인 외에도 현대인도 날고기를 먹는다. 육회나 생선회는 물론이려니와 한국인들은 정력에 좋다고 하여 사슴 뿔을 잘라서 피를 즉석에서 먹고 불란서에서는 발간 말고기를 얇게 썬 것을 맛있게 먹는다. 유목민들은 고기를 말린 육포를 즐겨먹으며 이누잇이나 어부들은 고기를 잡으면 즉석에서 살점이나 내장 기관을 먹는다. 싱싱한 것이 몸에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래 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가(佛家)에서 선식(仙食)이라 하여 곡식과 야채 그리고 식물의 열매와 줄기 혹은 뿌리를 날 것으로 먹는다. 아침 이슬과 맑은 공기로 익은 열매는 무공해 자연식으로서 그만이다. 영양가도 높을 뿐 만 아니라 그 자체의 상징성이 있다.

최근에는 비만과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건강담론과 아름다운 몸매를 위한 미용담론에 의하여, 그리고 중산층의 고급 소비문화의 한 항목으로서 익힌 것보다 날 것을 먹는 일이 유행한다. 어느새 서구인들도 채소와 과일은 물론이고 회(사시미)와 생선초밥(스시)을 즐겨 먹기 시작한다. 익힌 요리 못지않게 날 것으로 먹는 요리법이 정교하게 발달하고 그것을 먹는 방식도 더욱 세련되고 있다. 한국인은 익힌 고기 뿐 만 아니라 생선회도 채소로 싸먹는 특이한 방법을 고안하였다. 이제 생선이나 육류를 날 것으로 먹는 것은 세련된 문화인의 한 고급스러운 식생활이 되고 있다. 이렇게 건강과 영양에 관한 과학적 인식과 문화 향유의 욕구가 결합하여 익힌 요리 뿐 만 아니라 생식(生食)의 범주와 종류도 더 발달하는 것이다. 더욱이 저장법과 수송체계가 발달하여 산지에서 신선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소비자의 입으로 전해지게 됨으로써 날 것은 오히려 고급식사의 항목이 되었다.

이렇듯 날 것은 성스럽고 순수하고 청결하여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며 그 맛과 색깔과 모양으로써 예술적 장르가 되기도 하며 권력, 사회적 관계, 아이덴티티, 그리고 맛을 향유하는 세련된 감각의 항목이 된 것이다.

# 한옥

전봉희 (건축학과 교수)

지난 가을 교내에선 공대와 농대의 학생들이 직접 톱과 대패를 들고 나무를 다듬어 소담한 한옥을 한 채 지었다. 겨우 방 한 칸, 마루 한 칸을 들인 2칸 4평의 작은 집이지만 작업에 참가한 20명의 학생들은 매주 주말 휴식을 반납하고 종일토록 나무와 씨름하였다. 20세기초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공학교육이 시작된 이래, 대학에서 그것도 최고의 과학기술 수준을 자랑하며 세계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서울대학에서 한옥 짓기를 가르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니,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모두 감회가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최근 한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를 보면, 이것이 단지 일과성의 행사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작년에는 처음으로 한옥과 관련된 전시회가 시내와 교내에서 열렸고, 올해는 그것이 미국의 주요도시를 순회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미국 대사는 한옥으로 지어진 주한미국대사관저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세계의 모든 미국대사관저 가운데 최고의 것이라는 찬사를 바쳤다. 정부에서도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력하여 한옥의 진흥을 위한 법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고, 서울시, 전주시, 경주시 등의 지자체가 한옥밀집지구를 보존하는 조례를 만든 것은 이미 여러해 전의 일이다. 최근에는 1962년 창립이래 지금 줄곧 아파트를 건설하여온 주택공사가 새로 조성하는 택지개발지구내에 한옥단지를 짓겠다고 하니, 무언가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듯 갑작스런 한옥으로의 관심은 무엇에서 비롯한 것일까? 모든 일에는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와 내부적인 계기가 있게 마련이니 최근의 한옥붐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선 떠오르는 것은 한옥이 가지는 미래 대안주택으로서의 덕목과 다른 한편 현재의 아파트 중심의 주거시장이 갖는 한계이다.

아파트와 비교하여 한옥은, 마당을 가져 자연과 접하고, 천연의 재료를 사용하고 폐기물을 내지 않는 생태적 건축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집에 사는 사람들과 호흡을 함께 하며 살아가는 동반자와 같은 존재이다. 집은 인류가 정착생활을 시작한 이래 계속해서 있어왔던 것으로, 근대적 개념의 건축가가 등장하고 공동주거가 대량으로 건설되기 전까지 오랫동안 집주인의 요구와 노동과 감독에 의하여 지어지는 주문생산품이었다. 궁궐의 높은 건물이나 종교적 기념물에 비한다면, 집은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있어 손쉽게 붙이고 줄이는 것이 가능한 것이었다. 물론 전근대 사회의 주택들을 지을 때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장인들의 조력이 필요하였지만, 공사의 전 과정을 감독하고 진행하는 것은 집주인으로서 집은 결국 집주인이 만드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택의 생산과정은 우리가 소위 양옥이라고 부르는 단독주택을 지을 때까지는 지속되었다. 집주인이 집을 짓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시장

에서 사다 쓰게 된 것은 아파트와 같은 대형의 건물 속에 둥지를 틀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말하자면 집짓는 과정으로부터 소외되고 집과 주인이 격리되는 것이다. 이후 자기 집에 대하여 주인이 아닌 입주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겨우 이미 만들어져 꼼짝달싹 못하는 벽체의 사이에 가구를 배치하거나 벽에 그림을 거는 정도에 그치고, 그 마저도 이웃의 눈치를 보아가며 가능한 소란을 피우지 않고 조용히 기숙하면서 집값이나 오르길 기다리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한옥이 시장에서 홀연 사라진 것은 1960년초의 일이고, 이후 양옥의 시대를 거쳐 아파트가 본격화된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가 된다. 이 과정은 우리나라에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는 시기와 일치하는데, 제각기 직장과 학교에서 전투적인 경쟁을 치러야하는 도시민들에게 아파트는 최소한의 잠자리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큰 역할을 하였다. 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주거유형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환영받은 주거유형이라고 할 만한데, 이미 1997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주택 총량의 절반 이상을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다. 높은 지가와 전통적인 주택관 등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여 곧잘 비교되는 이웃 일본의 경우, 아파트나 연립 주택 등을 제외한 단독주택이 전체 주택의 60%를 차지하고, 그 가운데 40%가 목조건축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아파트에 치중해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어섰고, 서울 등의 대도시권에서도 곧 100%에 다다를 전망이다. 최근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의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시장의 상황은 이제 우리나라의 주택산업이 더 이상 양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인 발전을 꾀해야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한옥이 새로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이러한 공급 과잉의 주택 시장 상황과 관련있다.

1960년대초 한옥이 갑자기 사라지게 된 것에는 당시 새롭게 제정된 건축법의 영향이 컸다. 주택을 지을 최소한의 땅의 크기를

정하고, 이웃집과의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는 점 등 당시 제정된 건축법의 내용은 외국의 건축규정을 원용하였을 뿐 한옥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 새롭게 제정될 한옥진흥법(가칭)에서는 이와 같은 차별조항들이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는 한옥을 짓는 일이 가능하게 해주는 필요조건이지 한옥을 선택하게 해주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한옥이 새롭게 시장에서 선택받기 위해선 기존의 한옥이 가지고 있는 여러 불편한 점들을 해소해주는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전통 한옥이 갖는 격식과 가치와 현대 한옥이 요구하는 편의성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고, 이 둘 사이의 조화로운 단계를 찾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한옥이라는 말은 언제 생긴 것일까? 놀랍게도 아니 조금 생각해보면 당연하게도 한옥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서양건축이 처음 소개되던 19세기말 20세기초에 양옥이라는 말과 함께 처음 사용되었다. 한옥이라는 말은 그때 까지 사용되던 와가니 초가니 하는 지붕의 형태나, 인가니 궁실, 관아라고 하는 용도에 따른 차이를 불문하고, 전통적인 형태와 구조를 가진 모든 집을 새로 도입된 서양식 건축과 구분하여 부르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고 보면 한옥은 지극히 근대적인 용어이고 서울대학에서 한옥을 연구하는 일도 어색한 일이 아니다. 우리 캠퍼스에 한옥으로 지어진 멋진 강당에서 우리 학자의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는 강연이 열리는 날을 꿈꾸어본다.

◉ 사진 : 전봉희 교수님 제공

# 한국의 창조신화는 왜 세계의 불안정성에 대해 질문을 던졌을까?

서유경 (농경제사회학부 3)

신화는 원형을 드러낸 이야기이다. 인간 활동 전반에 걸쳐 관찰된 이미지가 반복성을 지닐 때 원초적인 의미가 담길 수 있다. 신화에서 상상력을 통해 드러난 원형적인 이미지에 관한 사례를 국어국문학과 조현설 교수가 소개하는 한국의 창조신화와 관련지어 소개한다. 한국의 창조신화를 담은 고문헌으로는 고려후기에 만들어진 이규보의 『동명왕편』과 이승휴의 『제왕운기』를 들 수 있으나 서문에 짧게 기록돼 있어 충분하지 않다. 한국의 창조신화는 대부분 무가로서 무당들에 의해 구전된다. 자료중심의 설화를 연구할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현존하는 무당들의 굿과 무가를 채록하여 분석한다. 창조신화는 재창조신화와 함께 두 축으로 나누어 전개된다. 창조신화는 함경도의 무당 김쌍돌의 〈창세가〉 채록본, 제주도의 무당 박봉춘의 〈천지왕본풀이〉를 중심으로, 재창조신화는 근대의 민속사학자 손진태 선생의 채록본을 바탕으로 전개한다.

### ▲ 창조신화 : 개벽과 일월조정의 모티브

〈창세가〉에 나오는 창조 이전의 세계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유사한 형태로 드러난다. 이 세계는 하늘과 땅이 붙어있는 어둠의 상태이자 아무 것도 없는 세계이다. 미륵은 천지를 연다. 방형의 땅 위에 하늘이 둥글게 덮여 있는 세계이다. 이것에 미륵은 구리기둥을 박아서 서로 멀어지게 한다. 중국의 반고신화와 유사한데, 이 점은 인도신화와 관련이 크다. 한편 〈천지왕본풀이〉를 보면 천지 개벽의 주체가 없다. 순전히 천지가 저절로 창조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적인 저절로 개벽하는 양식으로 창조되고 있다는 의미를 보여준다. 이 자료의 기반에는 음양론적 세계관이 배후에 깔려 있다. 물론 뒤로 가면 이렇게 만들어진 세계에 신들이 등장하는 대목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래의 신화가 후대에 이르러 음양론을 받아들인 무당들에 의해 구전되면서 만들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창조의 과정을 일월조정의 모티브라고 한다. 이것은 태초의 세계에 해와 달이 여러 개 있어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가워 사람이 살기 힘든 환경에서 그 수를 줄여나가는 이야기로 이어진다.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춥고 덥다는 것은 창조된 세계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세계를 안정의 단계로 접어들게 하는 조정자가 등장한다.

〈창세가〉에서는 미륵이 그러한 존재이고 〈천지왕본풀이〉에서는 대별왕과 소별왕이 등장한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활을 쏘아 해와 달을 분리한다. 그런데 두 작품에서는 창조의 과정에서 각각 갈등이 발생한다. 〈창세가〉에서는 미륵의 적대자인 석가가 등장하고 〈천지왕본풀이〉에서는 대별왕과 소별왕이 갈등을 빚는다. 이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작에서는 석가가 미륵을 속이고, 후작에서는 소별왕이 대별왕을 속인다. 그리하여 미륵은 인간세계에서 아예 떠나버리고 대별왕은 저승세계를 지키는 존재가 된다.

### ▲ 홍수신화 : 재창조된 세계에서의 고민

홍수는 성서의 '노아의 방주'에서 보듯이 재창조의 신화적 모티브이다. 재창조신화는 홍수신화라도 불리는데, 크게 '오누이 유형'과 '목도령 유형'으로 나뉜다. 보다 보편적인 것은 전자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이야기에서는 모두 홍수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다. 홍수가 끝난 뒤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세계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인류가 이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재창조돼야 하는 것이다.

오누이 유형은 홍수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죽고 남매만 살아남는다는 설정이다. 이 때 다시 세상에 인간들이 살기 위해서는 근친상간의 고민이 생긴다.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남매는 하늘의 뜻에 따르기로 하여 암멧돌과 수멧돌을 언덕에서 굴려 멧돌끼리 겹쳐지면 혼인을 하기로 한다. 멧돌은 암수 형태로 되어있는 농경문화의 상징물이다. 두 남녀는 하늘의 뜻이라고 여겨 결혼을 하고 인류는 새롭게 시작한다. 한편 목도령 유형은 나무 신(神)의 아들인 목도령이 아버지인 나무를 타고 물에서 떠내려 갈 때 개미들을 살려주고 다른 소년을 살리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나무 신은 소년이 악한 존재이므로 살려주지 말라고 하는데 목도령은 그 소년을 살리기로 한다. 홍수가 끝난 뒤 두 소년은 한 노파를 만난다. 노파에게는 친딸과 수양딸이 있다. 목도령과 소년은 모두 친딸과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갈등을 맺는데 결국 목도령과 친딸이, 소년과 수양딸이 결혼한다. 이들의 자녀는 각각 인간세계의 선인과 악인이 된다. 목도령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나타난 미륵과 석가의 대립과 유사하다.

### ▲ 종합

한국의 창조신화에서는 창조된 세계가 불완전한 인식으로 돌아간다. 인간 세계는 불안전성 때문에 끊임없이 변동한다. 또한 신들 간의 관계에서 위계를 조정해놓지 않는다. 창조신이 단일하게 나타나지 않고 신들 간의 대결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재창조 신화에 가면 짝이 있는 형식으로 엮여 나타나기도 한다. 창조 과정에 문제가 생길 때 타자에게서 문제 해결을 구하는 형태로 자연에 문제가 생기면 인간이 해결하고, 인간에 문제가 생기면 하늘의 문제를 땅이 해결한다. 이런 신화적 상상력이 풍부하게 존재하면서 음과 양이 서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 우주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있지만 신의 창조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것은 동양적 세계관의 소산이다. 이러한 신화는 현재 무가를 통해 현장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진행형이다.

[해당 기사는 이건우 교수(불어불문학과) 조현설 교수(국어국문학과)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교양 [상상력과 문화]와 관련한 내용임을 밝힙니다.]